

가정의학

전립선비대증 (BPH) 수술 치료(Operation)2

전립선비대증 치료 방법으로는 풍선 확장술(balloon dilation), 전립선부요도 스텐트삽입술(prostatic stents), 온열요법(hyperthermia treatment), 열치료법(thermotherapy), 전기기화술(electro-vaporization), 경요도적 침소작술(transurethral needle ablation, TUNA) 등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레이저를 이용한 최소침습치료법들이 개발되어 환자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경요도적 레이저 유도 전립선 절제술(transurethral laser-induced prostatectomy, TULIP), 직시하 레이저소작술(visual laser ablation, VLAP) 레이저 전립선소작술(laser ablation), 간질성 레이저응고술(interstitial laser coagulation, ILC) 등 여러 의료 장비 회사에서 매우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초음파(ultrasound)의 파장을 이용하여 열을 발생시키는 방법을 적용한 고강도 초점 초음파치료술(High-Intensity Focused Ultrasound, HIFU)과 같은 고가의 장비도 나와 있어서 치료법을 선택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이들 최소 침습적인 치료법들 중에는 아직까지 장기적인 추적 결과(long term follow up result)가 보고되어 효과가 입증된 종류가 많지 않아



그 치료 효과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치료법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덜 침습적인(less invasive) 방법일수록 수술을 받기가 편리하고 수술 후의 고통 받는 정도와 기간이 짧은가 하면, 반대로 더 침습적인(more invasive) 수술방법일수록 재발률(recurrence rate)이 적은 편이며, 수술 방법을 고려할 때는 전문의와의 면밀한 상담을 하여, 수술 방법들의 장단점을 잘 고려해서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수술 방법을 선택하도록 해야 하겠습니

▶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오문목 가정의학비뇨기과
원장 오문목 의학박사
TEL (949) 552-8217



치과

틀니(Dentures)

이가 하나만 없어도 불편한데 아랫니 전체가 빠지고 없다면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윗니 전체에 틀니를 낀 사람은 그러저럭 견뎌 나가지만 아래에 틀니를 낀 사람은 많은 어려움과 통증을 호소한다. 아랫니 잇몸 틀의 형태학적 구조가 전체를 틀니로 하기에는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까닭이다.

가장 좋은 대안은 인공치아인 임플란트를 이식할 때처럼 인공치근을 심고 거기에 부분 틀니를 한다. 인공치근에 인공치아를 씌우는 임플란트는 실제 치아와 모양, 씹는 힘, 수명에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큰 매력이다. 하지만 아랫니 전체를 임플란트로 하기에는 가격이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때문에 인공치근과 틀니를 함께 사용하면 씹지 못하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선 잇몸 틀이 충분히 클 때는 빠진 아랫니 중 앞니 부위에 2개의 인공치근을 심고 여기에 맞게 틀니를 제작한다. 전체 틀니보다는 음식을 씹을 때 틀니가 좀 더 안정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역시 틀니는 조금씩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며 음식물 찌꺼기가 틀니 밑에 들어가면 잇몸에 통증이 느껴진다. 반드시 주기적으로 틀니를 조정해 주어야 한다.

다음은 46개의 인공치근을 심은 뒤 이 인공치근들을 연결하는 금속의 봉을 제작해 인공치근에 고정된 다음 틀니의 안쪽 면에 클립이라는 유지장치를 부착해 그 금속봉과 클립이 움직이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

다. 이는 틀니의 안정성과 견고성을 극대화한 것으로 인공치근 2개를 심었을 때보다 더 안정적이고 틀니의 움직임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이 틀니는 언제나 빠서 당울 수도 있다. 5~6개 또는 그보다 많은 개수의 인공치근을 심고 틀니를 나사로 고정하는 방법도 있다.

틀니가 잇몸에 닿지 않기 때문에 틀니로 인한 잇몸 손상이 전혀 없고, 틀니의 움직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다. 틀니가 나사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틀니 검사는 주기적으로 치과에 가서 해야 한다. 한가지 단점은 틀니 밑 부분의 청결을 위해 투자해야 하는 시간이 많다.

만약 잇몸 뼈의 크기와 모양이 좋다면 8개 이상의 인공치근을 심어 자연치아와 비슷한 모양을 갖출 것을 권한다. 많은 수의 인공치근을 심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비싸지만 저작력과 느낌, 모양이 자연치아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틀니를 할 경우 더 많은 수의 인공치근을 심으면 입천정을 덮는 부분을 그만큼 줄일 수 있으므로 음식물의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고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가질 수 있다.

남태준 종합치과
남태준 원장
TEL (714) 871-4962



척추건강

정보의 시대

우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여러 가지 삶의 정보들을 얻는다.

몸에 이상이 있거나 아픈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얻고 또 공유한다. 특히 허리 통증이나 목통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번 씩은 겪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거나 TV 광고에 나오는 치료기들, 건강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며 또 복용하기도 한다.

우리 병원에 방문하는 분들은 증상이 거의 비슷한 환자분들이라도 모두 조금씩 다른 원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들에게 항상 어떤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하시는지 꼭 물어보는데 그 이유는 환자분들을 치료하다가 보면 그 가운데는 다른 분들에 비하여 증상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고, 그 대부분의 이유는 너무 무리한 스트레칭과 운동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목디스크, 허리 디스크는 팔, 손 저림 다리 저림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데 우리 병원을 찾는 분 가운데 때로는 너무 무리한 운동이나 스트레칭으로 인해 디스크가 터져서 응급실을 찾았던 사람들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목이 빠거나 다치면 발목 보호대를 해야 하고 심할 경우에는 목발을 잡고 조심조심 다녀야 하는

것(x-ray 촬영을 통해 뼈가 금이 가거나 뿌러지지 않았을 경우) 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목이나 허리가 많이 아플 경우에도 정확한 진단을 통해(x-ray 촬영으로 목이나 허리의 퇴행성 진행 상태를 알 수 있음) 어떤 운동이나 스트레칭이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지를 알아서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 가운데에는 너무 무리한 스트레칭으로 디스크가 심하게 돌출돼 신경을 눌러 참기 힘든 고통을 너무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다. 우리 병원을 찾은 환자들의 경우는 MRI를 찍어 몇 번 디스크가 얼마나 크게 나와서 어떤 신경을 누르는지 정확하게 진단한 이후에 디스크 감압치료기(DRX 9000)와 척추 교정을 통해 정확하게 치료를 하고 있다. 물론 환자에 맞는 스트레칭과 운동도 증상이 좀 나아진 후에 병행하고 있다.

특히 목, 허리 통증이나 목디스크, 허리 디스크일 경우에는 대부분 평생을 함께 가야할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치아 관리처럼 척추병원을 방문하시며 꾸준한 관리를 통해 척추 건강을 유지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조이 척추신경병원
원장 Joy H. Kim, D.C.
TEL (714) 449-9700
1401 S. Brookhurst Rd, #103
Fullerton, CA 92833



건강

꿀약국 이야기

병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항상 건강할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겠지만 아쉽게도 그건 사람들의 바람일 뿐 현실은 항상 질병의 위협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런데 병치레가 잦고 그로 인해 병원에 갈 일이 많은 사람들이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치의가 아닌 다른 의사로부터 처방 받은 약은 꼭 주치의에게 알리고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혈압이 높거나 당뇨가 있거나 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며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 주치의로부터 진료와 약 처방을 받아 복용하며 생활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심장전문병원을 방문하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전문병원에서 그동안 자신의 주치의가 처방한 적이 없는 약을 처방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처방약을 꼭 주치의에게 가지고 가서 심장 전문의가 처방해 준 약이 자신이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하고 같이 복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꼭 상의를 해야 합니다.

다른 의사가 처방한 약을 주치의에게 알리지 않았는데 그 약이 평소 복용하던 약과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되는 약이었다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누구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주치가 전문의로부터 처방받은 약이 현재 복용하고 있는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해당 전문의와 상의해 다른 약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약국에서도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들에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되는 약이 또 있거나 약의 성분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면 당연히 약을 처방한 병원에 연락을 하지만, 환자 본인도 어떤 약이든지 복용 전에는 꼭 주치의와 상담해서 다른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약들을 함께 복용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건강상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매니저 유 벤자민
Honey Pharmacy
TEL (562) 403-2332
7002 Moody St, #106
La Palma, CA 90623

